

한국 전통 춤사위 벌여보세

양혜정 전통춤판

2월 26일 국립국악원서

일본 발레학교 유학시절 한국 전통춤에 매료된 젊은 무용가가 각 유파(流派)별 전통춤의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운 과정과 깨달은 가르침을 춤사위로 풀어낸다.

양혜정 한국예술컴퍼니 춤매 대표(36)는 2월 26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양혜정의 전통춤판-모든 사물의 시초 남상(南相)' 공연을 펼친다.

공자의 제자 중 자로(子路)는 성질이 용맹하고 행동이 거칠어 무엇을 하든 남의 눈에 잘 띄었다. 어느 날 자로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자 공자는 말했다.

"원래 양쯔강은 민산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시작될 때의 물은 겨우 술잔을 띄울 만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로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 입었다. 공자는 매사는 시초가 중요하며 시초가 나쁘면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 한 것이다.

양 대표의 "매사는 처음이 중요하고 모든 사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지닌 '남상(南相)'을 주제로 열정과 집념, 지적 호기심, 학구적인 열의를 오랜 일본유학생활에서 얻은 감수성으로 승화시켜 표현하고자 했다"며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한줄기의 빛살을 따라 춤추기를 찾듯이 각 유파별 전통춤의 큰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예를 연마했다"고 말했다.

양혜정 대표는 일본 오사카와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각 유파의 스승들을 찾으며 춤을 배워 국내·외 콩쿠르에 참가해 '2006년 일본 도쿄 나가노 국제무용대회 특상' 등을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양 대표의 첫 개인 발표회



양혜정 대표는 이번 공연에서 한영숙류 승무를 선보인다.

다. 그는 각 유파별 레파토리 전통춤인 > 한영숙류 승무 및 태평무 >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 박병천류 진도북춤 등 4가지 작품을 3부에 걸쳐 선보인다.

제1부는 스승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반복해 몸으로 체득하는 '지킬 수(守)', 제2부는 원칙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체계화해 유파의 깊이를 차츰 깨달아가는 과정을 나타낸 '깨트릴 파(破)' 3부는 한 유파를 통해 입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춤을 창조해 절치탁마하는 과정인 '떠날 리(離)'의 과정을 표현했다.

1부 공연에서는 이병욱 용인대 무용학과 교수가 해설과 함께 바라춤과 범고무를 선보인다. 양혜정 대표는 이진순 해운예술단장과 부처님의 덕을 찬양하고 축생을 제도하는 범고무를 춘다. 인천시무형문화재 이수자 지우·성우 스님이 특별출연해 고통·번뇌·망상·집착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바라춤으로 표현한다.

1부에서 눈여겨 볼 것은 양혜정 대표가 추는 한영숙류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

호다. 한영숙류 승무는 남색치마에 흰색, 분홍색저고리 흰 장삼을 걸치고 머리에 흰 고깔과 어깨에는 붉은 가사를 매고 양손에는 북채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긴 얇불, 반얇불, 삼현타령, 느린 허튼타령 중 허튼타령, 굿거리, 자진굿거리로 구성된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을 잘 표현한 춤이다.

2부 공연에서는 양혜정 대표가 무속계 살풀이의 원조격인 김숙자 류 도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을 시연한다. 박병천류의 진도북춤과 한영숙류의 태평무를 비롯해 남상춤의 대표작인 사풍정감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3부는 양혜정 대표가 유파를 찾으며 체득한 춤을 자신만의 춤으로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여백으로 표현한다.

양혜정 대표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한국 전통춤의 우수성과 정체성, 문화 정서를 일본에 알리고 일본 무용을 한국에 알리는 양국 간 문화교류의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극락 전(前)



극락 문 앞에 어수선하다. 언제 심판 역의 불국토를 지나왔을까. 아득하다 못해 기억 속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지나 우리는 이제 극락 문 앞에 섰다. 눈보라치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발자국들을 스님이 쓸어내고 있다.

"어여 들어와!" 하지만 날리는 눈발처럼 극락 앞에 선 우리는 생각이 많다.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나

는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지, 극락이 눈앞인데도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지나 왔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많다.

"어여 들어와!" 누군가 늘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문 밖에 있다. 극락이 바로 앞인데... 부처를 찾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 극락을 찾는 사람. 극락 문 앞에 어수선하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각상 조선 송계 나식 선사의 '사천왕을 송함(頌四天王)'

사천왕의 위엄에 놀려

塵塵劫前受佛記 (진목겁전수불기) 耳邊眼裏蒼光明 (이변안리야광명) 神通妙力難思議 (신통묘력난사의) 天地中虛現大形 (천지중허현대형)

진목겁 전에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깃가 눈 속에서는 광명을 뿜어내네. 신통과 미묘한 힘 생각이 어려우려 천지 허공에 큰 모양 나타내네.

조선 송계라식(松桂懶湜; 1685~1766) 스님이 사천왕을 송한 시이다. 사천왕은 사찰의 일주문에서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에 서있거나 그림으로 그려진 네 분의 귀상하면서도 정답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서우면서도 괴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기구에서는 사천왕이 아주 오랜 옛날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음을, 승구에서는 똑 불거져 나온 부릅뜬 눈과 큼직한 귀 등에서 광명을 뿜어 내는 듯한 모습을 표현했다. 전구에서는 선악을 구별해 상벌을 내

리는 동방의 지국천왕, 달변과 위엄으로 나쁜 것들을 물리치거나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도 도심을 일으키게 하는 서방의 광목천왕, 자신의 위력으로 만물이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남방의 증장천왕,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를 서원하는 북방의 다문천왕의 서원의 힘과 신통력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찬탄했다. 결국에서는 사천왕을 파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불법에 귀의한 이들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방위에서 몸을 나타내는 것을 송했다.

어떤 스님이 우스갯소리로 요즘 스님들이 병도 많고 탈도 많이 나는 것은 사천왕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이라한다.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몇 걸음 걸기가 귀찮아서 차를 타고 뒤로 난 찾길로 경내까지 쭉 들어가기 일쑤다. 이 때문에 사천왕문을 통과하는 일이 거의 드물다. 사천왕문을 통과하면 모든 사천왕이 사천왕의 위엄에 놀려 두려워 떨 어져 나가 청정해지는데 이를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늘 상 청정치 못해 아프다는 현실 세태를 그림자하게 꼬집은 이야기다.

수행은 편리가 아니다. 심신도 편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사찰을 찾는 것이 뒷문으로나 다니는 몇 몇가지 못한 일은 결코 아니지 않은가! 이제부터 걸어서 천왕문을 통과하는 신심과 예의를 보이면 어떨까?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사리)

불교창작연극 '이 뿔꼬!', 부산 공연

2월 25~26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서

지난 해 10월 첫 선을 보인 불교창작연극 '이 뿔꼬!'가 부산에서 공연된다.

J&C코리아뮤지컬컴퍼니(대표 정광진)는 2월 25~2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이 뿔꼬!'를 공연한다.

'이 뿔꼬!'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채 경쟁심리와 물질만능주의에 편승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에 신음하는 사회병리를 고발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불효자는 읍니다' '삼류매

우' 등에 출연한 탤런트 강태기(61)씨가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살 하는 주인공 정선우와 용맹정진하는 무명 스님역을 열연할 예정이다.

정광진 대표는 "삶의 허무 속에서 생과사의 귀로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정선우의 눈과 마음을 비추어 비이성적인 현실과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반추해 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25~26일 오후 3·7시에 열린다. (051)867-8524 이나은 기자



연극 '이 뿔꼬!' 중에서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성지순례

미안마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팁,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특징: 기법과 설치 용이

원터치 고리용, (인등) 소원성취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불제개원기업

귀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귀입문의 (032) 582-6235~6 귀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1-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건전지용 초(정품)

- 방생, 탐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할,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